



다시 대한민국!  
새로운 국민의 나라

※엠바고 :

즉시 보도 가능

배포 : 2023년 9월 22일(금)

## 윤석열 대통령, 유엔총회 계기 세르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(9.22)

- 한-세르비아 경제동반자협정(EPA) 협상의 조속한 개시 추진 -
- 발칸 주요협력국인 세르비아와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투자·ICT 등 실질협력 강화 -

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.22(금) 오전 「알렉산다르 부치치(Aleksandar Vučić)」 세르비아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.

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세르비아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,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

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이 최근 「아나 브르나비치(Ana Brnabić)」 세르비아 총리의 방한(9.8-11)에 이어 개최되었다면서 양국간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,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습니다.

양 정상은 최근 양국이 투자보장협정에 서명(7.8)한 것을 평가하고, 앞으로 한-세르비아 경제동반자협정(EPA) 협상도 조속히 개시하여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

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자고 했습니다.

윤 대통령은 한국이 세르비아의 수요에 부합하는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하고, 앞으로도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ICT, 공공행정 등 분야를 중심으로 세르비아 정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. 부치치 대통령은 한국이 전자정부 협력센터 및 정보접근센터 운영 등을 통해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, 양측간 관련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.

부치치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제기한 모든 협력 방안에 적극 응하겠다고 하고, 세르비아의 리튬 등 희소자원과 연계한 배터리 생산 협력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습니다.

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공감하고, 주요 곡물 수출국인 세르비아와 한국 간 식량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습니다. <끝>